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달리고 달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東南書同窓會報

발행·편집인: 안강태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 FAX:245-7550
인쇄처: (주)동방인쇄
Tel:(051)636-9477 · FAX:636-9478

단기 4334년(음력 10월 5일)

올해 용마의 밤 12/8 롯데호텔서

본부 회장단 회의 현안문제 심의서 확정

본부동창회 슈퍼 이벤트인 '06용마의 밤' 축제가 오는 12월8일(금) 오후 6시 30분 부산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및 수도권, 울산 대구 대전 등 광역시권, 창원 마산 등 경남·북권, 전라·충청권 등 동문 15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축제는 제1부 기념식에 이어 제2부 버라이어티쇼 한마당과 흥운상 추첨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축제 계획안은 지난 9월26일 부산 동구 범일동 대여(일식 전문점)에서 열린 올해 제3차 본부 회장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안강태 회장(11회·대선

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이 밖에 내년 2월 중 발간 예정인 총명부의 광고유치 계획안, 본부 홈페이지 개편안, 기별대항전인 제38회 야구대회(10.15~11.11)와 제9회 용마골프대회(10.30) 예산안을 승인했다.

한편 야구후원회 발기인 대회 개최와 일반 회원 연회비제 김토, 동창회 조직 강화와 활성화를 선도하는 본부 회보의 본부 직송안, 적자운영이 심화되고 있는 회보 제작비 확충안 등을 심도 깊게 토의했다.

특히 본부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으로, 본부 총무와 동기회 총무는 사무국장으로 호칭을 바꿔 잠정 사용 후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했다.

장을 비롯해 차상영 고문 등 10명이 참석, "김조 회장을 주축으로 한 집행부의 노력 결과 동기회가 정상화된 데 대해 크게 만족한다"며 발전 가속화를 기대했다.

이어 회무보고와 재정상태를 보고받은 후 스지난 몇 년 동안 논의해 온 '회계연도 12월31일' 개정의안 △정기총회 겸 송년회 일정 △김조 회장 유임 등을 의결했다.

12월 13일 정기총회 제16회 고문단 회의서 확정 김조 회장 유임기로 의결

제16회동기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오는 12월13일 열린다. 이는 앞서 지난 10월 23일 부산 중구 영주동 상해기리의 중남해(중국음식점)에서 열린 고문단 회의에서 확정됐다.

옥윤석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고문단 회의는 김조 회

제28·39회 감격의 우승

제39회동기회는 올해 기별대항 야구대회에서 패권을 쟁취해 용마기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았고, 제28회동기회는 용마골프대회에서 우승해 침피언십컵에 감격의 입맞춤을 했다.

준우승 제27회 '통한의 1점차' 분파

본부 제38회 기별야구대회

최우수선수상 이승기 (39회)

우수투수상 하성포 (39회)

인기기족상 황귀령 (27회)

지난 11월11일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38회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야구대회(주최 본부·주관 경아회) 결승전에서 제39회는 영원한 맞수 제27회

와 물려날 수 없는 한판승부를 벌인 끝에 15-14로 무승했다.

이날 공수면에서 '우승0순위'로 손꼽혀 온 제27회는 치열한 타격전에서 한발 앞섰으나 중반을 넘어서면서 예기치 않은 야수실책 등이 돌발, 통한의 1점차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분패,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최우수선수상(MVP)은 이승기 동문(39회·포수)이 차



제39회 선수단 대표가 우승기를 받고 있다. 제39회는 지난 11월11일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38회 기별대항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제27회를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준우승 제16회 '사생결단 퍼팅' 과시

본부 제9회 용마골프대회

개인전 정의석 (44회)

시니어 이용웅 (19회)

여성부 지미숙 우승

지난 10월30일 부산CC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9회 기

별대항 용마골프대회 단체전에서 제28회동기회가 대망의 침피언십 영광을 누렸다. 제28회는 이날 송재성(73타) 노영현(76타) 김만종 선수(79타)가 퍼조의 퍼팅으로 종합 228타를 올려 저력을 과시했다.

〈2면에 넘김〉



Mercedes-Benz

주식회사 부산스타자동차

회장 유재진 22회

대리 오용승 46회

전화 010 6500 6404

E-volution

A new generation has arrived. The new E-Class

지렀다.

우승한 제39회는 제35회(1차전·20대7)·제33회(16강전·12대7)·제44회(8강전·12대6)를 차례로 물리쳐 준결승전에 진출, 제43회를 21대 16으로 제압해 결승전에 올랐다.

준우승 제27회는 제23회(1차전·11대4)·제19회(16강전·13대7)·제32회(8강전·10대8)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준결승에 올라 제28회와 격전(16대13) 끝에 결승행 티켓을 땄다. 이번 대회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상 ▷우승 : 제39회
▷준우승 : 제27회 ▷입장식
참가1위 : 제32회 ▷2위 : 제28회 ▷3위 : 제33회 ▷4위 : 제31회

▲개인상 ▷MVP : 이승기 (39회) ▷우수투수상 : 하성포 (39회) ▷수훈상 : 권수원(28회) ▷타격 1위 : 박종국(39회·6할4푼7리) ▷2위 : 정순환(39회·6할3푼6리) ▷3위 : 이승기(39회·4할4푼4리) ▷감부상 : 이상기(39회) 황영훈(27회 황호경 아들) ▷인기상 : 전창민(27회) ▷인기 가족상 : 황귀령(27회) ▷미기상 : 안성진(39회) 김종현(27회 김대용 아들) ▷감독상 : 문기호(39회).

연합팀, 단일 제17회 격파

한편 앞서 지난 10월15일 오전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개막식은 동문·가족 400여 명이 참석했다.

〈2면에 넘김〉



용 마 춘 추

조 돈 만 | 제14회 · 언론인

나도 내년이면 '지공세대'가 된다. 지공세대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말의 뜻이 참으로 묘하여 박장대소를 하다가 끝내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실컷 살아온 결과가 고작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는 특혜로 종착되는 것만 같아 맘이 뭔가 착찹했다.

"지하철 공짜가 어떤데,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 많은 나 같은 백수가 지하철 공짜가 얼마나 고마운데..." 주변 친구들 중에는 지공세대의 혜택을 100% 활용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지하철을 타고 동창회 사무실로 가거나 정년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

하자는 결의를 했다. 내년이면 이 단카이들이 무더기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수는 약 680만 명으로 일본 전체 인구의 5%를 차지 한다. 별 써부터 장사꾼들은 이들의 노후 지출과 쓴쓸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단다.

일부 미래지향적인 사업가들은 실버산업의 중요성을 느끼고 빌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뿐, 대부분 장사꾼들은 박연히 노령층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65세 이상의 세대들도 일본의 단카이들처럼 뭉쳐서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 사회를 들판이고 다닌다면

지공과 단카이

의 가계 등으로 다닌다. 나는 이 '지금세대'란 말이 '장차 땅 속 공간으로 들어갈 세대'로 해석해 볼까 하다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아 그만 뒀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6~7살 아래 세대를 단카이(團塊-덩어리)라 부른다.

단카이라는 단어는 광맥에서 나오는 광산물 '영어리'에서 나온 말이라 한다. '영어리'는 뭉쳐서 크게 이루어진 것,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뭉쳐진 폐를 말한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항상 몰려다니면서 일본 사회를 들판이고 있다. 지난 2월 도쿄에서 2500명이 모인 가운데 단카이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단카이들은 적극적 사회 참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좀 신나게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로서 우리 세대가 스스로 실버산업에 선도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요새 나는 그저 지공이란 단어에 안주하다가 언젠가는 무기력하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먼저 간 친구들의 얼굴도 어른거리고 어릴 적 친구들도 그리워진다. 지공들이 어떻게 살면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동창들 중에서 은퇴 이후 새 삶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미있게 사는 이가 있는지 수소문을 해보기도 한다.

동창이라도 삶에 좋을 스승이라면, 한 수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1면 '기별야구'에서 받음>

입장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우승기 반납·안강태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 대회사·김종석 교장(24회) 환영사·참가상 시상·교가제 참등 순으로 진행됐다(사회·이종원 경야회 총무·29회).

이어 장타대회와 연합팀-제

17회(단일팀) 경기, 대회 첫 단일팀 경기인 제33회-제34회 대전이 펼쳐졌다. 이를 경기는 제33회는 제34회에 융단폭격을 단행, 29-5로 낙승했다.

앞서 열린 연합팀-17회 경기는 연합팀이 7-3으로 이겼다. 이날 입장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상 ▷우수선수상: 이효근(14회) ▷우수부수상: 허

설(10회) ▷수훈상: 김영식(14회) ▷타격상: 이상훈(11회) ▷감부상: 최봉현(14회) ▷인기상: 이범열(17회) ▷미기상: 이강식(10회) 최충락(14회) 이상옥 성윤환(이상 17회) ▷특별상: 전재수 최병철(이상 14회) 김시영 송인문 동문(이상 17회).

장)이 출연원 상으로 벤츠(C180) 1대를 협찬,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0명 48개조로 티입

시타식은 오전 10시45분 아웃코스 1번홀에서 안강태 본부 회장과 신준호 재경 고문 및 윤승홍 재경용마골프회 명예회장(이상 14회), 본부 자문위원 및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편 클럽하우스 로비에는 협찬 내용별로 기탁자 명단은 현수막이 걸려 이채를 띠었다.

오후 5시15분 거행된 시상식 겸 단합회에서 안강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용마골프대회가 동창회 발전과 용마가족 결속을 위한 촉매제가 되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선 대회운영위원장(14회) 겸려사와 윤승홍 재경용마골프회 명예회장 축사, 협찬 금·시상품 기증자 발표, 부산CC 도우미와 관계자 수고비 전달, 행운상 추첨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운대상(갤러웨이 드라이버)은 이경호 동문(29회) 부인 성화선씨가 받았고, 행운상(압력밥솥·골프가방 등)은 이승기 동문(39회) 등 79명이 차지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바람막이 언더셔츠·한성침치 세트·가방명찰 등이 기념품으로 전달됐다.

<3면에 협찬금품 기탁자 명단



본부 주최 제9회 기별대항 용마골프대회(10월30일 부산CC) 시타식에서 대회 본부 일원 등이 시타를 하고 있다.

경의의 보석'을 캐냈기 때문. 이는 김영부(77타) 지수신 선수(79타)와 함께 "트리오만세!"를 외치게 했다.

3위에 머문 제20회는 준우승과 231타 동타(同打)를 이뤄 '선배기 우선'이라는 대회 규정에 따라 아쉬움을 달랠 했다(이상 우승컵·준우승컵·3위컵과 각각 부상). 개인전·시니어부·여성부 입장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전 ▷우승: 정의석(44회) ▷메달리스트: 유재진(22회)

▲여성부 ▷우승: 지미숙(25회) 김연석(동문 부인) ▷메달리스트: 이귀옥(23회) 이영흔(동문 부인) ▷준우승: 권영숙씨(14회) 박병선(동문 부인) · 이상 각 트로피·부상.

안강태 본부 회장(11회·대선조선 대표이사)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오전 9시15분 190명의 선수들이 48개 조로 나눠인·아웃 코스에서 동시에 티업했다. 특히 동문 부인이 23명이나 출전, 대회 사상 최다참가를 기록했고 유재진 본부 회장(22회·부산스타자동차 회

뉴질랜드지역동창회 임원 · 회원 일동

고문 박웅진 (6회)

회원 서명궁 (15회)

조학제 (11회)

김수홍 (16회)

박성규 (13회)

이한옥 (18회)

회장 박봉수 (33회)

차준호 (18회)

감사 정강홍 (15회)

(옛이름 순도)

총무 김성종 (36회)

최홍수 (20회)



이영구 (22회)

정동호 (23회)

이상수 (23회)

류한욱 (27회)

이왕봉 (29회)

조봉래 (31회)

임용철 (34회)

윤용제 (34회)

하병갑 (37회)

김경률 (42회)

제정완 (44회)

동문 여러분의 뉴질랜드 방문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 회장 박봉수 649-449-0340, 64272-012345

총무 김성종 649-416-6961, 6427-416-6982

제33회 “우승야호!” 천성산 메아리

동문·가족 200명 겨루… 준우승 제23회

본부 용마등산대회

지난 11월12일 열린 본부 용마산악회 주관 제7회 동창회장기 기별대항 등산대회에서 제33회동기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용마가족 200명(가족 34명 포함)이 참가한 대회는 제28차 정기산행대회(올해 4차)를 겸해 열렸다.

준우승은 제23회, 3등은 제17회가 각각 차지했다.

하영수 회장(17회·한국치공구공업 대표)이 총괄한 이

날 행사는 오전 10시20분 신남석 산행대장(21회)과 오기록 부대장(23회)의 리드로 영산대 앞을 출발, 천성산(922m) 주능 삼거리(11:00)~산하동 계곡 사거리 길립길(11:40)~



지난 11월12일 열린 본부 용마산악회 기별대항 등산대회에 참가한 동문·가족 200명이 산행 들머리인 영산대 앞 주차장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12월26일 송년의 밤 재경 경팔회, 부부동반으로

재경 경팔회는 오는 12월26일 오후 7시 서울서초동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 출구에서 예술의 전당 쪽)에서 '06정기총회 결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김동훈 회장 주재로 열릴 이날 행사에는 부인들도 초대돼 그동안 배운 내조의 공을 치하받는다.

칠순 4명 지리산 세번째 종주 재경 경팔산우회 김영철 회장 등 노익장 과시

칠순 중반을 눈앞에 둔 '산(山)사랑 4종사'가 나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세 번째로 지리산 등정에 성공, 화제를 모았다.

주인공은 재경 경팔산우회

김영철(회장) 김수돈 이희순 정형수 동분.

이들은 지난 9월25일 세 번째로 지리산 종주에 놀입, 고루 끝에 천왕봉을 등정하고 노익장을 과시했다.

회갑 기념 순금 메달 증정 ‘화제’

통영회, 동창회 발전 기여 동문에 여섯 번째로
회칙에 ‘포상’ 명시… 정년퇴임도 적용

동창회 조직 활성화와 용마가족 유대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정년퇴임 또는 회갑맞이 동문에게 순금 기념메달(사진)을 증정하는 지역회가 있어 화제다.

통영지역동창회가 그 주인공, 표광민 통영회장(29회·표광민내과의원장)은 지난 10월17일 정기월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같은 달에 회갑을 맞은 권재진 동분(21회·전 산새유치원장)에게 기념메달을 전달,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기념메달 수여는 권 동분이 여섯 번째로, 이는 동창회 회칙에 따른 것. 이 같



은 포상은 역내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촉진하는 활동소가 되고 있다.

한편 집행부는 같은 달 21일 부산파라곤호텔에서 화족을 밝힌 조영철 동분(49회·통영직십자병원 내과과장)에게 역내 동문들이 모은 축의금을 전달했다.

“졸업40돌 기다리려니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 제25회, 5년 앞당겨 ‘홈커밍’연습

제25회 용마가족들이 “졸업 40돌 홈커밍 행사를 기다리려니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다”며 5년 앞당겨 35주년 축제를 벌였다.

지난 10월28~29일 경주 보문단지, 송정구 회장이 주재한 첫날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야

제는 서병수 최철국(이상 국회의원) 박맹우(울산광역시장) 동분을 비롯, 부산과 서울 전국에서 100여 명(부인 포함)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뒷날 일행은 남산을 산행한 후 호텔에 다시 모여 점심식사(부페)를 하고 헤어졌다.

제14회 회장단 회의 경부야구대회 적극 참여

제14회동기회 회장단 회의가 지난 10월2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서면 고래와 참치횟집에서 김용호 회장 주재로 열렸다.

김 회장을 비롯, 14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는 11월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리는 경부친선야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개최했다.

본부 제9회 용마골프대회 협찬금품 기탁 동문

오강욱(10회·남선곡신 대표)=10만원

안강태(11회·본부 회장)=200만원

박병선(14회·본부 부회장·대회운영위원장)=50만원

신준호(14회·재경 고문·롯데햄 선물세트 5점·시원소주 15상자)

구자신(14회·쿠쿠전자 대표)=80만원 상당 루무 압력밥솥·전기밥솥·가습기

이길미(14회·태성산업 대표)=100만원 상당 골프화 5점

여성렬(17회·서면골프 대표)=골프장갑 20점·골프가방 명찰

서부원(18회·한샘주택 대표)=80만원 상당 스프레이식 미니소화기 20점

김순호(19회·삼화스포츠 대표)=골프가방 세트 5점

임우근(19회·한성기업 회장)=참치·명란젓갈 선물세트(40% DC)

구현수(21회·테이비드 대표)=45만원 우디아이언 3점

유재진(22회·본부 부회장·부산스타자동차 회장)=홀인원상 벤츠(C180) 1대·바람막이 언더셔츠 250점·쇼핑백 다수

임창섭(36회·오니골프 대표)=골프 기능성 글립 4박스

강병중(네센 회장)=300만원 상당 빅야드 골프공 50박스

이민환(부산칸트리클럽 이사장)=최고급 골프공 5박스

의 심금을 울렸다. 연주 중 손천의 부부의 블루스 댄스, 길길제 천두갑 홍광희 노성 현 부부, 장연식과 송유봉 부인(정총재)의 즉석댄스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천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오수명 육병규 장수일 총무, 그리고 이들 부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뒤처리까지 달아 수고가 많았다.



가을야유회에 모인 제18회 동문·가족 75명이 구만산 등산길에 오르기 전 경남 밀양 표충사에 들러 경내를 둘러본 후 포즈를 취했다.

회를 위해 회장단이 적극 참여하고 관계 동문들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당구 이영준·골프 안영자 우승

등대회는 25일 오후 7시 중구 중앙동 할매횟집에서(이종수 회장 등 8명 참석), 보수회는 20일 오후 6시30분 서면 고래와 참치횟집에서(이길미 회장 등 15명 참석) 각각 정례 회를 개최했다.

당구모임 KBC는 14일 오후 4시 부산동구 초량동 풀코당구장에서 월례대회(조영봉 회장 등 11명 참석)를 열어 우승 이영준·준우승 강주신 동분이, 골프모임 일사회는 11일 통도CC에서 월례대회(조청자 1명 등 12명)를 열어 우승 안영자·준우승 권희정·메밀리스트 박병선 동분이 각각 차지했다.

울산 용마·청조 체육한마당

'이웃사촌' 정 다시 활짝
경고팀 종합우승 차지

울산권 경남·부산중고 출신 동문과 가족들이 10여 년 만에 부활된 체육잔치에 참여, '이웃사촌'의 정을 끊어피우고 상호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며 유대강화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선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10월 15일 울산지역동창회는 시내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열린 '06청조·용마가족 학동체육대회(양교동창회 공동주최)를 주관, 화합 한마당을 펼쳤다.

박홍조(경고 22회)·황두환(부고 17회) 양교 울산회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정원준(경고 3회)·최문갑(부고 5회) 대회 고문을 비롯해 허홍숙(19회) 본부 사무총장, 정갑윤(23회) 김기현 국회의원, 오덕준(부고 17회)·수석부회장·조장래(경

고 23회·수석부회장) 부대회장, 권기택(28회·사무국장) 집행위원장, 서정숙(15회·수석감사) 심판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행된 기



울산지역동창회 선수단 대표가 부활된 용마·청조체육대회(10월 15일)에서 우승 기록을 받아 훈하고 있다.

념식에서 박홍조 울산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가 양교 동문·가족 간 친선과 우의를 돋구는 한편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협력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응원전 속에서 용마와 청조는 야구 족구 훈련

릴레이 줄다리기 등 5개 경기를 치른 결과 용마팀이 3-2로 승리, 종합우승의 영광을 누렸다. 대회 MVP는 이현동(44회)이 차지했다.

용마는 가족이 동참한 빌야

구(3-1)와 릴레이 줄다리기에서 이겼고, 청조는 야구(10-9)와 족구(2-1)에서 승리했다.

시상식 직후 펼쳐진 어울마당에서 양교 동문·가족들은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으로 한 마음을 이뤘다. 내년 대회는 청조가 주관한다.

사상 첫 '전무후무 4관왕' 탄생

김시열, 우승·메달리스트·니어핀·통기스트 싹쓸이

재경 경열회 동문들은 11월 전복회별 모임마다 지난 10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졸업 50돐 기념 홈커밍 축제 이야기로 법석을 떨었다. 모두들 한복소리를 "10년 후 60돐 행사에는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까?" 였다.

재경 경열회 11월 수업
홈커밍 화제로 한복만착

분당회(회장 김연수)는 18일 저녁 서현역 근처 기와집순두부에서, 신본회(회장 윤영태)는 14일 정오 산본역 근처 한판회마당에서, 강북회(회장 강재환)는 2일 정오 평래역에서 각각 정답을 꽂았다.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정상수)는 16일 오전 평촌 중앙 테니스장에서 부산의 히 셀

동문을 초청한 가운데 빅 매치를 벌였고, 등산모임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11일 사파산에 올라 호연지기를 했다(26일 청계산 등산 계획).

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같은 달 23일 정오 자유CC에서 라운딩을 즐겼고,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영덕)는 28일 오후 교대역 근처 금연기원에서 수담을 나눴다.

일금회(회장 손정)는 24일 저녁 일산주엽역 근처 마라도에서 일식요리 맛을 음미했고, 강남회(회장 김해룡)는 28일 점심 때 교대역 근처 기와집순두부에서 술진을 나눴다.

전이회에 소주 30병 꿀꺽
손자'바둑거목' 실전 배치

앞서 10월 수업을 받은 반가

운데 산본회는 10일 한판회마당에서 출인영 동문 등 12명이 '도당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회를 빼놓고 놓고 소주 20병에 맥주 10병으로 횡설수설 콘테스트를 벌였다(스폰서 정갑환 동문).

정우회는 12일 평촌 중앙코트에서 김포의 심영환 동문(점심 대접) 등 8명이 기량을 겨뤘고, 동수회는 24일 정인호 동기회장 등 8명이 금연기원에서 열전을 벌였는데, 구송(九松)은 전달에 이어 이번에도 외손자를 데리고 나와 바둑수업을 시켰다. 외할아버지는 "장래 바둑계 거목으로 키우겠다"고 큰소리(스폰서 김영덕 동문).

경록회는 26일 자유CC에서 고무웅 동문 등 16명이 라운딩을 펼쳤는데, 일대 사건이 터졌다. 주인공은 이날 그로스 79·네트 67을 쳐 우승한 김시열 동문. 김 동문은 우승

해인사 절골 추색에 낭만 솟고

경팔회 부부동반 가을야유회 참관기 | 이성호

지난 10월 27일 경남 합천 해인사 절골. 온 산이 오색 단풍으로 불타고 있다. 경팔회 '06가을야유회가 펼쳐진 날, 안종렬 회장을 필두로 36명(부인 14명 포함)의 관광단은 만산 흥엽(滿山紅葉)이 연출하는 황홀경에 넋을 잃고 산사와 호수의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고불암~해인사~합천호를 아우르는 풍광을 스케치해본다(시진).

일행은 합천 팔경 중 하나인 홍류동계곡 4km의 물소리를 듣고 명상에 잠겨 있을 고불암(古佛巖)을 찾이간다.

굽이굽이 도는 길은 구절양장 같다. 실버티운을 지나 오르니 아낙네들이 쌈배추잎을 따고 있는 고랭지 채소밭이 펼쳐진다. 숨을 고르고나

먹거리촌 감로식당에서 동동주에 산채정식으로 곱식은 우정을 나눈다. 오후 3시경 버스는 홍류동계곡을 빠져 야로와 묘산면을 지나 아름다운 합천호로 달린다. 봉삼 삼거리와 새터관광지를 지나 대방면 회양관광지에서 내린다.

호수를 바라보며 등나무 아래의 자에 앉는다. 김병길 동문이 가져온 양주와 준비된 소주로 간이파티를 벌인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귀가길에 오른다.

관광버스는 '달리는 무대'다. 부인들의 피꼬리 같은 노래와 재담들이 판을 후끈거리게 한다. 고회 중반의 '백발청춘'들이 재통(?)을 떤다.

흥겨운 노래판 끝에 어느 부인이 와이담을 터뜨린다. "할아버지가 손



니 고불암이다.

수문장 격인 돌갓을 쓴 돌탑을 지나 48계단 위에 있는 대웅전 앞에 이른다. 여러 요사채 등을 둘러보고 암자를 물러난다.

해인사 입구에 이른다. 법보종찰 해인사를 향하여 삼삼오 가야산 상왕봉(1430m)을 오르며 아름다운 비경에 취한다. 성철선사 등 고승대덕의 부도를 보고 그 신심과 공덕들을 헤아린다.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지나 대적광전에 이른다. 본존불에 배례하고 나서 고려팔대장경각을 둘러보고 수십만 그루의 자작나무에 새겨진 호국불심을 감탄하다가 산문 밖으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메밀리스트, 니어핀(70cm), 봉기스트(235야드) 등 4관왕에 등극, 경록회 사상 첫 기록과 함께 골프 역사를 새로 쓰게 했다. 그의 핸디는 12에서 7이 됐다.

자를 불러 앉혀 놓고 공부를 점검하며 하는 말, '애야 1에서 10까지 써봐라.' 손자가 종이에 1 2 3 4 5 6 7 8 9 10을 적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어려 '년 10을 왜 이렇게 작게 썼노?' 하니, 손자놈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가 그러는데 십은 작을수록 좋다고 해서 작게 썼지요' 하더라"고 웃는다. 삽시간 버스 안은 폭소도 가니가 됐다.

장유휴게소를 지났다 싶었는데 조방터 국밥집이다. 허기를 달랠고 서로 건강을 당부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옛말에 '기비구구 인유구구(器非求舊人惟求舊)'라더니 역시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오래 사귄 정든 사람이 좋다'는 말이 실감 나는 하루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 김시열·메달리스트 조수영·준우승 이승락·3위 조상진·봉기스트 이정배(210야드)·니어리스트 진강(1.3m)·행운상 이근태 동문.

을 지키고 고기를 모으는 어부팀으로 약 300년 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물가에 가서 물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해삼을 몇 마리씩 잡아와 방조림 가운데 둘러앉아서 오돌오돌 씹으면서 남은 소주병을 비운다.

독일마을 방조림 뒤 언덕배기에는 빨간 지붕의 양옥 몇 채가 보인다. 독일마을이라고 한다. 독일 사람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이 마을은 1960년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진출, 온갖 고생을 견디며 조국 근대화의 주역이 됐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 더러가 모여들어 정착하고 있는 곳이다.

일행은 남해 창선과 삼천포를 이어주는 '창선-삼천포대교'를 빠져 나와 귀가길에 오른다.

제17회·성곡나노텍 고문

'한국의 나폴리' 남해 풍광 만끽

마산·창원회 하계수련회 동행기 | 정무경

합포만 용마가족들이 올해 하계수련회를 풍광 빼어난 남해 일원에서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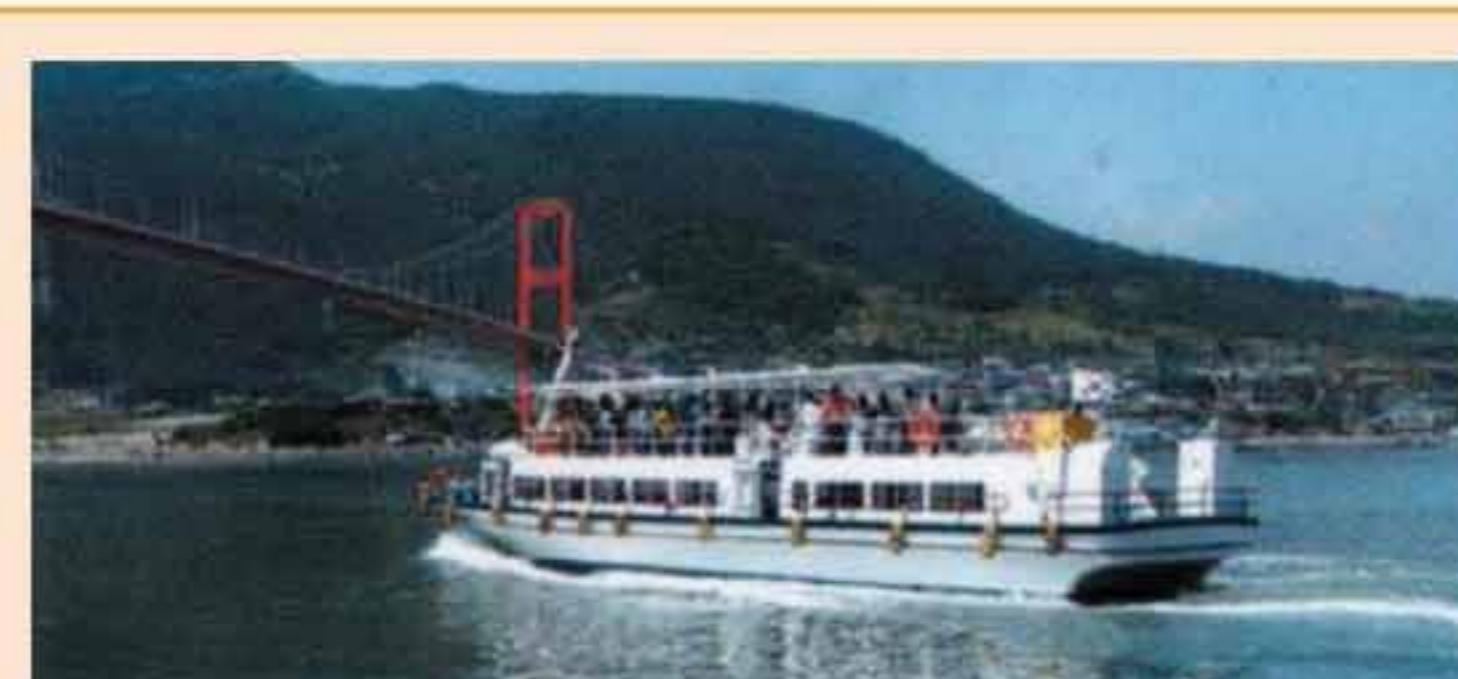
지난 9월 10일, 마산·창원지역동창회(회장 여환부·21회)는 동문·가족들을 이끌고 남해스포츠파크~상주·송정해수욕장~유람선관광~물건방조어부림~독일마을~창선·삼천포대교 코스에서 견문을 넓혔고 평소 넘치는 정을 품어 나누면서 재미를 만끽했다.

남해스포츠파크 광양제철 건설 당시 얼어진 준설토로 매립한 이곳(서면 서상리 소재)은 축구장과 야

구장을 비롯해 각종 경기장이 조성돼 있다. 기후가 따뜻해 프로야구·축구 선수단을 위시해 실업·직장팀, 초·중·고·대 선수단 등이 전국에서 모여 든다.

해수욕장·미조항·울창한 송림과 은빛 백사장을 자랑하는 상주·송정해수욕장이 길손들을 반긴다.

점심때를 맞춰 미조항에 들어선다. 온갖 해산물이 집산되는 남해의 어업 전진기지인 이곳은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고 있다. 한쪽의 그림으로 펼쳐지는 횟집에서 합포만 것보다 더 달착지 근한 생선회를 맛본다.



마산·창원 용마가족들이 유람선을 타고 남해 일주 해상관광을 했다.

유람선관광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잖은가. 일행은 유람선에 오른다. 바닷길은 사랑바위·스핑크스바위·조도·호도·쌍용굴 등등 이름 그대로 다도해(多島海)다.

물건방조어부림 미조 유람선 선착장에서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니 울창한 수림이 나온다. 물건방조어부림(삼동면 물건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숲은 태풍과 염해로부터 마을

미 대학 박물관에 한국관 세워

허완구 (9회) 15억원 기증 기획전 등 마련

"우리의 뛰어난 문화재들이 박물관의 일본관 한 귀퉁이에 처박힌 채 '왕따'를 당하고 있어 분노를 느꼈습니다."

본부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한 허완구 동문(9회·승산 회장·사진)은 최근 미국 오리건주립대 슈나이처 박물관 안에 한국미술 전용 전시관인 한국관(허완구 윙 Wing)을 짓고 한국 고미술 특별전을 비롯해 여러 기획전을 잇달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미술 수집가로 소문난 허동문이 이 대학에 한국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최근 2년 사이 기증한 돈은 무려 150만 달러(약 15억 원). 이 중 50만 달러는 작년 1월 개관한 전용 한국관 건립 비로, 나머지 100만 달러는 올해 초 '한국미술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데 사용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증했다.

대학은 허동문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100만 달러에서 나오는 연수의 6만~7만 달러로 해마다 한국 미술 특별전을 열고, 한국미술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로써 지난 10월20일 슈나이처 박물관 한국관에서 정도준(평소 허동문이 가장 아끼는 서예가) 기획전을,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한국 고미술 특별전을 열었다. 특히 이 박물관에서는 최근 '한국의 십장생(Ten Symbols of Longevity)' 도록(圖錄)을 발간, 이를 미국 전역의 미술관과 박물관, 일반 대학에까지 보냈다. 허동문은 요즘 미국 땅에서 '한국미술 전도사'로 회자되고 있다.

허동문과 슈나이처 박물관의 인연은

난 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동문은 오리건주에 파웨스트(Far West)라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출장 때마다 이 박물관을 드나들면서 이름졌다.

허동문은 고(故) 구인회 회장과 함께 LG그룹을 세운 고(故) 허만정 씨의 12남매 중 5남. 다른 형제 대부분이 기업인이거나 허동문만이 미술 애호가라 집안의 미술품은 모두 그의 몫이다.

조부가 남긴 글 '우리 집안 사람이 가난하지 않음을 이야기 하나, 주위에

'한국미술 전도사'로 떠올라
집안 미술품 빠짐없이 수집



가난한 이가 가난하지 않은 이보다 더 많다… 모자람을 걱정 말고 고르지 못함을 걱정하라'의 글을 서예가 정도준 씨가 쓴 작품을 사무실에 걸어두고 있다.

"돈을 번 만큼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이 가르침을 매일 새기며 삽니다." 허동문의 생활신조이다.

단양 팔경 관광

재경 경팔회 가을야유회

재경 경팔회 가을야유회가 지난 10월26일 충북 단양 일원에서 실시됐다.

김동훈 회장 등 21명(부인 5명 포함)은 단양 고수동굴~유람선 관광~수안보 온천욕~단협회~귀가 일정으로 즐겼다. 이창근 동문이 신상품 실비아 드림카카오를 맛보게 해 '칭찬'을 받았다.

용마 2팀 히말라야 도전 제24회 산우애·구덕산우회 강행군

2개 팀 용마 알파니스트들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 반길에 올라 태극기와 동창회기를 휘날리고 있다.

강행군을 하고 있는 두 주인공은 제24회 산우애(山友愛)와 구덕산우회 팀. 이를 두 팀은 산행 일정이 다르나 지난 11월13일 한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산우애 경우 한승철 회장을 비롯해 인형수(신형대장) 강동우 구자웅 남창영 장수현 황규선 동문 등 7명은 28일까지 15박16일 일정으로 4200m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통칭 ABC)에 오른 후 푸힐전망대와 타토파니 노천온천, 치타완 국립공원 등을 순례하며 극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원정을 위해 최근 일본 시라다케산(대마도)을

비롯해 자리산과 속리산 등 국내·외 힘준한 산들에서 강훈을 쌓았다. 이번 원정은 일본 시라다케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 도전이다.

특히 일행은 쿰부히말 Land Peak(6189m·2001년)를 등정했고 안나푸르나 라운드 트레킹(2002~2003년)을 완주한 해외원정 베테랑인 인형수 대장이 리드하고 있어 일심동체가 되고 있다.

한편 구덕산우회 팀은 2001년 아이슬란드 피크를 등정했던 김준연 동문(28회)이 산행대장을 맡아 이승원(25회) 이종태(28회) 박종구 동문(31회)을 리드하는 가운데 안나푸르나 산군(山群) 완전 일주를 강행하고 있다.

안개에 묻히고 억새밭에 안기고

제17회 백두대간 '중치~육십령' 종주기 박종순



깃대봉 정상에서 포즈를 취한 제17회 백두대간 종주팀의 늠름한 모습.

지난 10월27일 제17회 백두대간 종주팀이 중치~육십령 구간을 주파하기 위해 밟음을 팔고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기상. 대간마루급을 밟으려고 첫발을 내디딘 일행은 재경 돌아이팀 7명(박철우·방교윤·정충인·이무웅·이상옥·조현우·최웅길)과 부산 산우회 7명(김구부·김지창·송유근·이건우·이성희·하영수·박종순) 등 모두 14명. 전날밤 전야제에서 거나하게 대작을 했지만 지친 기색이 없다. 새벽 5시24분 중치를 떠난 선발대는 백운산(1278m)을 향해 오르다 젓 봉우리를 만

난다. 안개에 묻힌 주변 봉우리를 조망하다가 정상 바로 밑에서 뒤따르는 산우들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른(07:15) 후 정상을 밟는다 (07:20).

1시간13분 동안 땀을 흘리다 무령고개 갈림길 선바위고개를 거쳐 오전 8시56분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의 시발점인 영취산(1076m)을 등정한다. 수많은 표시기 틈에 '경남고제17회 산우회' 표시기를 매단다.

전망대 바위에서 철우군이 가져온 오이를 먹으며 다리 품을 쉰다(11:32). 멀리 괘판산과 황석산을 보다가 논개 생

가로 가는 길이 시야에 들어와 어지간히 웃다고 짐작한다 (11:35).

무령고개와 오동제 저수지가 보이는 북바위 전망대에 발길을 내디는다(12:07). 억새밭에 안겨 잠시 품을 잡는데 오늘의 마지막 봉우리 깃대봉이 어서 오라며 손짓을 한다.

어느새 깃대봉(1015m)을 차고 올라(13:06) 멀리서 손짓하는 할미봉과 장수덕유, 남덕유산을 그리워한다. 깃대봉 약수터에 돌아(13:35) 시원한 물 한모금을 마시고 다리 품을 쉬는데 육십령에서 올라온 무부군과 마주친다.

얼마나 반가운지… 무용군은 멋진 사진을 선사하겠다며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올라와 품을 잡는다.

오후 2시30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착지인 육십령이다. 산행거리 21km(도상거리 18km)를 장장 9시간30분 동안 극기하고 성취감에 도취한다.

마지막 표시기를 교운군이 매될 때 끌찌로 내려온 현우군이 복을 죽인다.

일행은 함양 안의에서 그 유명한 갈비찜으로 허기를 달래고 석별의 손길을 나눈다.

막상막하… 불꽃 튼 경부교류전

14K 낙선회 부산에 모여 수담으로 우정 꽂피워

지난 9월 9~10일 부산 범어사 절골 동천장에서 열린 14K 바둑동아리 낙선회의 경부친선 교류전은 수담(手談)과 주담(酒談), 취미별 '손재주' 발휘로 어울마당을 연출했다.

올해로 열세 번째인 경부교류전은 지난 1994년 출범, 이후 부산과 서울에서 격년으로 초청하여 열리고 있다. 낙선회는 지난 1976년 부산 중구 창선동 둥아극장 옆에서 낙선회원을 운영하면서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했다.

부산 낙선회가 주관한 이번 교류전에는 서울에서 김영주 회장과 백흥수 동문(사범·프로파단)을 비롯해 13명, 부산에서 김병철 회장과 문운웅 동문(낙선회 대들보)을 포함해 15명, 여자 낙선회원 8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울산대공원 일주트래킹 14K 산악회 삼림욕도

14K 산악회는 지난 10월 1일 울산대공원에서 삼림욕을 겸한 트래킹으로 정기산행을 대신했다.

이날 트래킹은 부산 11명(부인 1명·초청 1명 포함)·울산 2명 등 13

10일 토너먼트제로 열린 바둑대회는 메인 게임 부문에서 으뜸상은 김수웅(서울)·버금상은 강주신(부산)·밸림상은 손영복 김성부(이상 서울), 부활조 부문에서 으뜸상은 박철수(서울)·버금상은 박종문(부산)·밸림상은 김병철 김철언 동문(이상 부산)이 각각 차지했다. 부산과 서울의 성적은 입상자 수로 따져 4대 4. 앞서 9일 저녁 열린 전야제 기념식은 김병철 회장의 환영사와 김영주 회장의 답사, 낙선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문운웅 김영주 배남순 동문 공로상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축배로 시작된 단합회는 전국적 명성을 뛨치고 있는 산성막걸리와 흑염소 숯불불고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별미 요리 등이 '칠짜궁합'을 이룬 가운데 신바람을 피웠다.

명이 오전 10시 50분 동문 출발 ~종각 ~솔밭 야외공연장~동쪽 능선~북문 능선(중식)~태화루~장미꽃단지(휴식)~나비관~약초관 코스에서 발풀을 팔았다.

일행은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 후 울산의 강호일 동문이 배운 단합회에서 축배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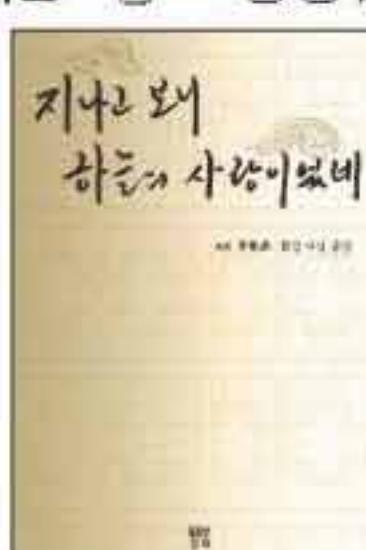
<지나고 보니 하늘의 사랑이었네>

이용흠(19회) 문집 펴내

이용흠 동문(19회·본부부회장·일신설계 회장)은 최근 회갑기념문집 <지나고 보니 하늘의 사랑이었네>(사진·동방문화)를 펴냈다.

(주)일신설계 창업자인 이동문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설계사무소를 운영해 오면서 사보와 신문, 잡지 등에 틈틈이 기고한 300여 편의 글 중 80편을 추려 <지나고 보니…> 한 권 속에 담았다.

'생활 속에서' 등 5부로 엮어진 이 책에는 저자의 삶에 대한 치열하고 진지한 자세와 독



특한 건축철학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건축주에게) 되돌려준다'는 저자 특유의 건축철학을 피력한 '심정心情 건축론'은 동종업에 종사하는 선·후배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동문은 부산시청 사와 BEXCO, 부산시립 미술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수많은 건축 설계 작품들을 남겼고, 부산시펜싱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저녁 부산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재경14회에 중국 황산 관광 '열풍'

산악회·북한산팀 부부동반

최근 재경제14회에 부부동반 중국 황산 관광 열풍이 불어 늘그막에 체력을 보강하고 시들해진 금슬도 되찾는 일석이조의 행복감을 누리고 있다.

14산악회(회장 박진)는 지난 9월 13~16일 중국 황산을 트래킹하고 상하이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끽했다.

이번 여행에는 권명·염현숙 부부를 비롯해 커플 12팀과 신준호 정현호 싱글 등 모두 25명이 참가했다. 이재돈 동문이 중국 역사와 너무나 해박하게 설명해 줘 "알찬 여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년잔치 12월 14일 재경21회, 정기총회 겸해

제 21회 재경회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7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근처 조양관(한정식 전문점)에서 '06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한다.

경부산행대회 천관산서

재경회 주관 서울·부산 합동 등산대회가 지난 10월 29일 전남 장흥 근교 천관산에서 열렸다. 이날 산행은 서울에서 20여 명, 부산에서 10여 명 등 모두 30여 명이 참가했다.

▲ 협찬자 : ▷ 문상대=5만원 ▷ 박상기 이재호 전기환 최재원=각 10만원.

바둑회 출범… 매월 한차례 수담

바둑회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 근처 서초 바둑살롱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구정모 동문이 주축이 되어 열린 모임에는 8명이 참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월례수담을 갖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방안 제시 경남중, 운영보고회 열어

부산시교육청이 '폭력 예방 연구학교'로 지정한 경남중은 지난 10월 26일 오후 학교 체육관에서 운영보고회를 열어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정환 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 주제는 '맞춤형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방안'.

행사는 자료 참관·맞춤형 동아리 활동(합창단·역할극 공연)과 운영보고·토론회(성과 점검·개선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끼' 교정 가득히 경남중 용마축제 성황

경남중(교장 이정환) 지난 10월 20~26일 제18회 용마축제한마당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특별활동교실 등에서 열었다.

올해 축제는 체육대회(20일·운동장)·학예발표회(21일·체육관)·학예전시회(23~26일·미술실 등)로 구분, 재능을 한껏 발휘했다.

학예발표회 경우 제1부는 사물놀이반의 '영남풍물가락'(3학년 박영광 등 18명·지도교사 정영옥) 등 8개 분야, 제2부는 경호무술 시범(경호고 찬조 출연)을 비롯해 가요제, 힙합댄스 공연, 팝송제, 3학년 '미스경남'이 눈길을 끌었다.

두 26명이 참가했다. 천길 땅펴리지 암벽에 붙여 만든 5만여 개 인공계단을 오르내리는 서해 대협곡에서는 모두들 한결같이 "신선이 되었다"고 허풍(?)을 젊었다. 어떤 '여학생'은 "구름에 가려지지 않았더라면 아래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염살을 부리기도 했다.

북한산팀(회장 조연제)은 같은 달 18~22일 상해~황산~황주를 관광했다(사진). 이번 여행에는 한수길·경송자부부를 비롯해 커플 12팀과 신준호 정현호 싱글 등 모두 25명이 참가했다. 이재돈 동문이 중국 역사와 너무나 해박하게 설명해 줘 "알찬 여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선발대회' 등을 연출했다. 학예전시회 경우 교과별 작품은 미술(1학년 최재완 등·지도교사 이선영·허지원)을 비롯해 국어(3학년 최태수 시화 등·지도교사 박미진), 영어(1학년 구태한 등 'My Dream Trip'·지도교사 김수정·이금희), 기술·가정(2학년 박민규 반바지 만들기 등·지도교사 이정선·박혜자)이다.

계발활동 작품 경우 역사읽기 반(3학년 백광진 등·지도교사 박도자)을 비롯해 프라모델반(3학년 김재현 등·지도교사 임숙연·임정애), 종이공예반(3학년 박진영 등·지도교사 이선영·이정주), 토탈아트(1학년 장윤수 등·지도교사 임난희), 계발활동 사진전시회 등이다.

특히 박현정 선생님의 '만화'와 권정숙(1학년 박선혁 어머니·목걸이 등 비즈공예)·배병수(1학년 배민우 아버지·지게목공예)·하종숙(3학년 박준성 어머니·시계·십자수)·김명숙(2학년 최희진 어머니·풍경십자수)·씨 등 학부모 찬조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뉴질랜드 지역 동창회>

朴雄鎮(6회)=1/23 Lavery Place, Sunnynook. 649-475-5598

趙學濟(11회)=12 Ballini Rise, West Harbour. 649-416-3381

朴聖圭(13회)=West Tyres. 153 Colwill Rd, Massey. 649-832-8403·649-837-2524·(Fax)649-837-2527.(e-mail)maldivespark@yahoo.com

鄭剛弘(15회)=전 정형외과 의사. 4 Lavender Court, Remuera. 649-578-3280·(Cel)6421-238-0543. (e-

mail)khjungos@hanmail.net

서명궁(15회)=22 Legacy Dr, Henderson. 649-837-1567

金秀興(16회)=21 Beauvoir Ave, Matakatia Bay, Whanaparaoa. 6499-428-2440·(Cel)6421-224-7789. (e-mail)sookim@xtra.co.nz

李漢玉(18회)=25 Oak Manor Dr, Albany. 649-448-2123·(Cel)6421-148-2383. (e-mail)bansungrang@hotmail.com

차준호(18회)=12 Mulgan Way, Browns Bay. 649-479-5055·649-366-0477·(Cel)6427-475-0848. (e-mail)dh_chung@hotmail.com

崔洪洙(20회)=Prince Co. Ltd. 2-24 Nihill Cres, Mission

Bay. 649-528-6867·649-366-0477·(Cel)6427-471-1415

李英求(22회)=선교사. A6 The Ridge 71 Spencer Rd, Albany. 649-479-2103·(Cel)6427-309-6233. (e-mail)Bellite09@hanmail.net

鄭東浩(23회)=42 Beechwood Rd, Browns Bay. 649-478-0055·649-366-0477·(Cel)6427-475-0848. (e-mail)dh_chung@hotmail.com

李尚秀(23회)=Elkara(건강식품) 대표. 72 Medallion Dr,

Albany. 649-479-1479. (e-mail)master@elkara.co.nz

柳漢郁(27회)=53 Bushland Park Dr, Albany. 649-415-6405·(Cel)6421-235-5605. (e-mail)Almond86@hanmail.net

李汪峯(29회)=Anne Art Flowers. 27 Calypso Way, The Palms Albany. 649-442-1124·649-442-5700·(Cel)6421-65-8540. (e-mail)wblee50@hotmail.com

趙鳳萊(31회)=냉동운송. 34 Calypso Place, Rothesay Bay. 649-479-4119·649-415-7145·(Cel)6421-55-7145. (e-mail)billcho58@hotmail.com

朴奉洙(33회)=Raywhite 부동산. 55 Forresthill Rd, Takapuna. 649-449-0340·649-410-8877·(Cel)6427-201-2345. (e-mail)bossspark@hotmail.com

林龍徹(34회)=7 Oak Manor Dr, Albany. 649-448-2464·(Cel)6427-410-6036. (e-mail)183yc@korea.com

尹勇堤(34회)=New Avonhead Travel·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장. Chrictchurch. 643-358-1149·643-372-9192. (e-mail)travelnz@ihug.co.nz

金成鍾(36회)=금융 broker, 델타수학. 6 Westergrove

<7면에 넘김>

어디서 무엇을

〈6면에서 받음〉
Place, West Harbour. 649-416-6961 · 649-416-6961 · (Cel)6427-416-6982. (e-mail)sjkary@hanmail.net

河炳甲(37회)=Barfoot & Thompson 부동산. 45 Armoy Dr, Dannemora. 649-273-2260 · 649-534-9042 · (Cel)6427-272-6156. (e-mail)haha@xtra.co.nz

김경률(42회)=유학. 649-920-6708 · (Cel)6421-159-1675

諸政完(44회)=한양쇼핑. 4A Marlon Lane, Dannemora. 649-277-8090 · 649-533-0123 · (Cel)6427-555-8800. (e-mail)pus@korea.com

제 5 회

金撤母耳=10월9일 별세
金政奎=본부 동기회장. 10월13일 아시아드 스포츠센타(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내) 리모델링 개업 · 011-889-0007

제 6 회

朴基英=9월19일 별세
김상국=가수 겸 영화배우. 10월15일 별세

제 8 회

〈동기회사무실〉

부산시 동구 좌천동 668-2 일신빌딩 2층 201호
☎ 051-645-3480

權舜杰=(자택 이사)광주시 서구 치평동 1168-9 중흥아파트 104동 1303호

具武鈺=재미 동문. (연락처 변경)714-821-4978

金洙倫=재미 동문. (연락처 변경)714-521-4413 · (Cel)714-925-1101

朴敬植=재미 동문. (연락처 변경)805-306-9304 · (Cel)805-404-9663

徐鎮根=(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서2동 선경3차아파트

301동 302호
鄭奇相=Mr. Larry K chung. 1250 W 163rd St Apt C. Gardena CA 90247-4449. U.S.A.

曹錫鉉=공군참전용사 감사로 선임.(자택)031-282-0848
崔洛秉=(자택 이사)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롯데캐슬 501동 1104호

제 10 회

高光守=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1184-3번지. 010-9335-5877

金棟坤=12월2일 서울 서초로얄프라자 3층 사파이어홀에서 아들 종안군 결혼.

朴仁圭=(자택 이사)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강변 현대홈타운 105동 401호

故 孫昇安=10월22일 서울 엠아오리스 메리츠타워 지하 1층 장녀 지현양 결혼

梁熙福=(자택)031-709-7761 · 011-732-7995

李相和=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1197 센텀파크2차아파트 204동 3704호

李宣衡=(자택 이사)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SK뷰아파트 104동 703호

李允植=(자택 이사)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1867동 문굿모닝힐 611동 901호. 011-213-4089

任政宇=(사무실)02-591-1862 · 011-9026-1862

全圭三=(자택 이사)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158-8 동성빌라트 C동 402호. 019-9113-9399

崔柄國=Byong Choi 10662 E Lemarche Dr. Scottsdale AZ 85255 U.S.A. (H)1-480-473-2919 · (C)1-602-885-0752. (e-mail)byongchoi@qwest.net

黃孝東=(자택)02-552-8080 · 016-236-8080

제 13 회

金時和=10월5일 장모 별세. 02-816-2006 · 011-9887-4230

표. 02-540-3617
安采植=11월11일 서울 삼성동 베일리하우스에서 삼녀 결혼

李小亘=9월20일 모친 별세. 051-338-3386 · 016-535-8248
李承彦=7월26일 별세
李永浩=10월21일 차녀 결혼. 016-9258-7014

李英勳=LOJIT Corp. 대표. 10월21일 양산물류센타 준공식. 031-704-8242

李在皓=본부 동기회장 · 변호사. 051-506-7381 · 011-595-6242
李宗烈=11월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장남 결혼

李宗相=서울시 균형발전 추

어디서무엇을

朴祥秀=11월18일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아들 규호군 결혼. 02-737-6091 · 017-355-6091
朴正錫=11월19일 서울 서초동 로얄프라자 1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차녀 은정양 결혼. 02-418-4437 · 018-263-4437
白明祚=9월15일 부산 해운대 매리어트호텔 장남 결혼

신동조=11월1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삼녀 나영양 결혼. 031-705-3135 · 010-8300-3135
沈官燮=11월14일 서울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 차남 재욱군 결혼. 031-264-3478 · 010-737-3434

李相澤=본부 부회장 · 효산의료재단 의료법인 안양병원 이사장. 10월26일 장인 별세. 031-467-9700
李龍雄=11월4일 부산 대연동 문화회관 영빈관에서 장남 결혼
鄭文和=9월1일부로 경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 054-770-5114 · 011-305-6361

曹達坤=경성대학교 교수. 9월16일 정년퇴임
趙源錫=9월30일 모친 별세
金萬根=10월29일 부산 금강예식장에서 장녀 시내양 결혼
金武源=부산시 서구 암남동 현대아파트 102동 1101호
金炳學=10월28일 부산 금강예식장에서 차녀 효영양 결혼
金勇基=국제통운 신선대CY 상무. 051-630-5600
金正來=부산영남중 교장으로 있다가 퇴직

金宗度=10월10일 모친 별세
裴南淳=10월14일 서울 명동천주교 대성당에서 장남 상민군 결혼
李文基=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8월말 정년퇴임
李哲根=10월27일 서울 장충동 타워호텔 웨딩홀에서 장남 규원군 결혼
조규향=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9월28일 이임

제 14 회

金 寬=10월21일 원주 한솔오크밸리교회에서 장녀 현정양 결혼
金宗度=10월10일 모친 별세
裴南淳=10월14일 서울 명동천주교 대성당에서 장남 상민군 결혼

李文基=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 8월말 정년퇴임
李哲根=10월27일 서울 장충동 타워호텔 웨딩홀에서 장남 규원군 결혼
조규향=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9월28일 이임

제 15 회

어디서무엇을

진본부장. 02-771-4920
張宗煥=9월21일 부친 별세. 017-334-6474
趙容碩=11월4일 서울 목5동 성당에서 차녀 결혼
陳允九=10월13일 장녀 결혼. 011-214-2700
崔銅完=9월29일 장남 결혼. 011-9775-2152
黃東奎=명지대교(주) 사장. 051-293-5913
許昌秀=GS그룹 회장. 10월23일 장녀 결혼. 02-2005-8000

제 30 회

金潤基=8월29일 모친 별세
朴俊哲=11월18일 부산 애광교회에서 장녀 선영양 결혼
李正夫=11월5일 부산 하모니웨딩타운 4층에서 차남 기욱군 결혼
蔣允石=(자택 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887-1 한솔솔파크아파트 B동 603호
鄭永善=10월21일 부산 하모니웨딩타운 3층에서 장남 석진군 결혼

朴守元=행진식육점 대표. 051-866-4455
朴精吉=7월11일 장모 별세
孫燦奎=동서약국 대표. 051-522-6318
宋寅喆=춘해병원 산부인과 과장. 051-638-8000
慎俊紀=10월1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차녀 진아양 결혼
安昌範=동의대 한방병원장. 051-850-8610
禹元鎬=정화약국 대표. 051-241-0110
柳秉宇=6월4일 별세
柳鍾又=부경대 건축과 교수. 051-620-1396
陸炳奎=부산시 수영구 로얄베스트피아아파트 101동 1007호. 051-757-6339
李成一=(주)삼보산업 부회장. 011-9503-5530
李祐三=팔도약국 대표. 051-752-3666
趙昌欽=9월22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장녀 화미양 결혼
池文碩=세운종합병원 소아과장. 9월9일 미국 L.A성당에서 장남 찬영군 결혼. 051-522-6000
千斗甲=본부 동기회장 · 유니코상사 대표. 051-319-3931 · 019-449-0012
千益柱=천경주단 대표. 051-246-2508
崔康登=(주)정공산업 대표. 051-261-2911
河榮一=부산 해운대 부흥고에서 명예퇴직
河眞鳳=7월14일 모친 별세
黃吉輝=4월21일 부산 호텔 농심 대청홀에서 장녀 인원양 결혼
許永太=7월20일 부친 별세

제 21 회

姜和中=금융결제원 전무. 02-531-1002
權五雄=연세병원 안과병원장. 02-2228-3400
金聖又=9월24일 장녀 결혼. 011-216-3365
金完一=(자택 이사)서울시

金來經=9월24일 별세
吳庚泰=9월8일 부친 별세. 016-9661-3921
李庸鵠=하늘못사람들(식당) 개업. 010-6472-8286
李鎮光=10월7일 부친 별세. 019-636-6646
徐國泰=9월7일 부친 별세. 017-244-8531
孫信=중앙U병원 효병원장 취임. 010-2202-0755
黃圭台=늘푸른소아과 이전 개업. 051-206-3780

제 49 회

조영철=10월21일 부산 파라곤호텔에서 결혼.

칠순의 감동들 눈물 속에 피고…

경열회 출업 50돌 홈커밍 동행기 서진홍

눈물의 만남 지난 10월 19일 오전 부산역 광장, 제10회동 기회 출업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맞은 110명의 용마들이 신선한 감동 속에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다. 이국반리 미국을 비롯해 일본 부산 서울 합천 구미 통영 창원 대구 울산 마산 진주 등에서 모였다. 서로 열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안부를 주고 받았다. 무정하고 어려운 '세월의 강'을 건너온 삶의 흔적인 흰 수염과 머리길, 깊게 패인 주름살을 훈장으로 자랑하며….

모교방문 우리는 꿈에도 그린 '마음의 고향' 모교에 들어섰다. 거대한 용마상 등 갖가지 기념물들, 재학 시 체육 시간에 틈틈이 모은 돌들이 적진성산(積塵成山)이 되어 이룩한 원형교사(덕현관)가 반겨주었다. 3만여 용마를 배출시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거대한 거목이 되게 한 모교… 우리나라 교육계의 혁성으로, 산증인으로 회자되던 은사님들이 남기신 사랑의 체취와 훌륭한 업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나고 있었다.

기념행사 김종석 교장(24회)과 장성욱 교감, 이도행 학생회장과 오영제 부회장, 이정환 경남중 교장과 이상백 교감 등의 환영 속에 조촐한 기념행사가 거행됐다.

서종철 총무의 사회에 따라 행사는 유명을 달리한 은사선배 동료 후배 등의 명복을 비는 북념, 김선동 회장의 회고사, 김종석 교장의 환영사, 정인호 재경 회장의 장학금(경남고 300만 원·경남중 200만 원) 전달, 학교에서 준비한 기념떡 커텁, 교가 제창, 기념사진 촬영, 교정 둘러보기 등 순으로 거행됐다. 추억과 그리움에 겨워 더러는 눈

물을 삼키기도 했다.

유엔호텔 단합회 오후 12시 30분에 일행은 유엔호텔 대연회실에 다시 모였다. 가야금 병창과 실내 악단(윤길중 티드)의 연주, 초청가수(우희·황소정)의 열창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선동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정인호 회장이 미국서 온 황정옥 동문 부인과 강석중 동문, 일본서 참석한 김창우 동문에게 기념품을 선물했다.

진치상은 항구도시 부산의 특성을 한껏 살린 한식뷔페로 풍성하게 차려졌다. 전복회와

누며 맵을 식혔다. 이어 모두들 기립하여 응원가를 그때 그날처럼 힘차게 불렀다.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다.

기라성 같은 부산·서울 동분들의 노래가 이어졌다. 특히 이기동 동분 부인(양용자)과 미국서 온 황정옥 동분 부인(안재현)이 두엇으로 열창한 '민남', 김기호 강성진 이지홍 허 섭 동분의 4중창 '고향의 봄', 안우만 하병용 동분의 '사랑 사랑 누가 했나요'가 객석을 사로잡다가 '왜지나 칭칭 나네'를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모두들 신선한 바닷바람을 심취하기 위해 송도 해변을 거닐었다. 저 멀리 오륙도와



제10회 동문들이 지난 10월 19일 50년 만에 모교에 모여 홈커밍데이 축제를 기념하며 원형교사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갖가지 즉석 생선회,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갖은 요리들이 술잔을 수없이 비우게 했다.

여흥한마당 김선동 회장이 밴드를 부추겨 분위기를 잡았다. 추억 깃든 유행가 '봉준을 놀려다오'로 막을 열었다. 모두의 심금을 울렸다(?). 이어 미국에서 온 흥안백발 강석중 동분이 '울고 넘는 박달재'를 열창해 분위기를 달궜다. 춤과 노래, 장기자랑이 부산·서울을 오갔고 당대를 풍미하는 황영조·심영환 동분의 만담 퀸레이가 모두를 요절복통케 했다.

객석이 진정되자 이정배 동문이 기념문집 빌간에 따른 보충설명을 했다. 술진을 나

비상하는 길매기들, 혈청소의 푸른 송림, 넘실거리는 파도 등이 추억을 되살렸다. 새로운 추억을 캐기 위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석별 오후 7시쯤 다시 부산역, 서울동문들은 부산동문들의 정을 확인하며 열차에 몸을 실었다.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후 60돌 홈커밍 때도 한 사람 빠짐없이 만나자." 모두의 희망이 '이별의 부산정거장' 가득히 메아리쳤다.

오후 7시 45분·서울행 KTX는 아쉬움을 싣고 서서히 풀랫홈을 빠져 나오고 있었다. '다들 또 만날 수 있을까?' 마음마다 진진한 불걸이 일고 있는 듯했다.

팔선회 바둑우승 최대성
골프 왕중왕 배주원·장은아

재경 경팔회 바둑모임 팔선회와 골프모임 잔디회, 산우회의 10월 정례회가 화기애애 속에 성황을 이뤘다.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20일 오후 2시 한일기원에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이 수단을 나눈 끝에 최대영 동문이 우승을, 이종수 신현주 동문이 각각 준우승과 감부상을 차지했다.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16일 기흥CC 서·북 코스에서 05년 10월~06년 9월 월우승자 왕중왕전을 겸한 제151회 월례회를 열었다. 입장자는 다음과 같다.

남자부 : 왕중왕 배주원·준우승 전영배·3등 김영길·니어리스트상 김태규·행운상

박재범 동문, 여자부 : 왕중왕 장은아·니어리스트상 이정자씨.

청계산에 올라 뷔페파티
호프잔치로 피날레 장식

산우회(회장 김영철) 동문들은 20일 판악산(11명) 등반을 비롯해 13일 수락산(12명), 7일 청계산(15명)을 올랐다.

청계산을 오른 날은 추석 뒷날이어서 각자 짜온 도시락으로 산상뷔페파티를 열었다.

푸짐한 차례 음식으로 안주를 대신하고 매실주 건배를 하면서 '가을야유회' 기분을 만끽했다.

하산 후에는 서울대공원 앞식당에서 강성태 동문이 흐프잔치를 베풀어 피날레를 상쾌하게 장식했다.

청량산서 경부합동산행대회

일오산우회 주관… 전설 깃든 절경에 탄성 연발

제15회동기회 경부합동산행대회가 지난 10월 14~15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북 봉화군교 청량산(도립공원)에서 열렸다.

부산 일오산우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부산에서 이동근 회장을 비롯해 17명(부인 5명 포함)·서울에서 보름신우회 회장을 위시해 21명(부인 8명 포함) 등 38명이 참가했다.

일행은 14일 오후 6시 경북 안동 시내 파크호텔에서 만나 만찬을 겸한 전야제를 즐겼고, 15일 오전 9시 A·B조로 나눠 등산·관광길을 밟았다.

소금강으로 불리는 청량산은 12개 봉우리가 연꽃 모양

을 이루며 태백산을 원류로 하는 낙동강이 웅장한 절벽을 끼고 유유히 흘러나가는 곳.

산우들은 청량정사(성리학 태우 이황의 후학들이 세움)와 유리보전(원효대사 창건), 김생굴(신라 천하명필 김생이 10년간 공부한 굴), 고운대와 독서당(최치원 수도처) 등을 거쳐면서 빼 뿐마다 신화와 전설이 가득 담겨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암괴석의 조화미에 탄성을 연발했다.

오후 4시 산행을 마무리한 일행은 한우전골정식의 명가인 고맛집에서 말칼스런 한토음식을 맛보며 해단식을 가졌다.

제15회 친목회별 가을활동 화친회 통영서 야유회 즐거

제15회동기회 친목회별 10월 정례회가 정겹게 열린 가운데 우정을 재확인했다.

의야회(회장 장수웅)는 16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부광회집(11명)에서, 가람회(회장 김황영)는 11일 오후 7시 서면 포항집(8명)에서, 화진회(회장

김종태)는 10일 오후 7시 연산동 할매낙지집(10명)에서, 이화회(회장 박재준)는 같은 날·시간에 서면 원조자갈치복집(5명)에서 각각 월례회를 열었다.

한편 화친회 제169차 정례회에서 11월 18일 경남 통영으로 가을야유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수의성 보장의 원 임대 1층 내과 3층 피부과 방사선과



- ▶ 현 1층 내과 150~200명 이상 진료중
- ▶ 2층 안과, 산부인과 성업중
- ▶ 3000여 세대 아파트 대단지 인접
- ▶ 상업, 위락시설 지역 버스 정류장 앞
- ▶ 국제대학교 문화권
- ▶ 동문님들께 특별대우
- ▶ 수의이 없으면 보증금/월 임대료 없음